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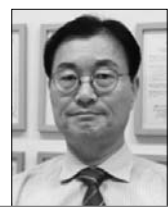
건강 칼럼

건강100세 시대 정말 가능할까요?

언제부터인가 '건강100세'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21년 기준 여자 83세 남자 79세로 언뜻 보면 기본적으로 80은 넘어 사는 것처럼 생각된다. 주변에 어르신들도 대충 그 정도(이상)는 사시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은 평균적인 값으로 천수를 누리는 경우가 아닌 모든 사망 요인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현재의 평균수명은 전반적인 국가수준의 공중위생 제도의 향상, 의학기술의 발달, 예방접종의 실시로 영,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아울러 성인도 가능한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질병, 질환은 어쩔 도리가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민층에서는 황혼을 가난과 만성질환 속에서 수십 년을 고생하고 엄청난 의료비까지 지출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아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윤 희
파시코 대표이사

1970년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2~63세였고(그 때는 화갑만 넘으면 장수한 것이라 하여 동네에서 '화갑잔치'도 벌이고, 내일 죽어도 호상(好喪)이라 했던 시절이다), 1980년 후반까지만 해도 70세 정도였는데 의과학, 기술 등이 발전되며 기대수명은 80년을 넘게 되었다.

2020년 기대수명은 남자 80.5년, 여자 86.5년으로 꽤 장수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질병, 질환을 가진 기간이 남자 14.9년, 여자 19.3년으로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이 남자 65.6년, 여자 67.2년으로 나타났다.

그 연령 이후에는 어떤 이유이던 시도 때도 없이 가족과 주변에 민폐를 끼치며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꽤 안락치 못한 건강

상태에서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것이다.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생존인구의 분포에서 [()는 생존확률] 71세 27.7천명(86%), 75세 18.2천명(54%), 국민연금 10년차), 80세 10.2천명(30%), 85세 5.2천명(15%), 국민연금 20년차), 90세 1.6천명(5%), 95세 4천여 명, 99세 650여명으로 나타났다.

위 자료를 보면 사실 80세까지 사는 것도 대단한 일이며 행운이자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을 설계, 실시할 때인 1988년도 만해도 평균수명(기대수명)이 70세 정도였고, 지금처럼 길어질 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60~65세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1년씩 연장됨)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2055~2060년도쯤에는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런 배경으로 지급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추후에는 (어쩌면)연금을 내고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상수령금액이 약간 줄더라도 조기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추세로 보면 덜 내고 더 받는 시대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 연구에 따른 생물학적 노화의 단계를 보면 생애 전반에 걸쳐 35~36세, 60~62세, 73~75세 등 3번에 걸쳐 급격한 노화가 진행되고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한다.

말이 쉽지 100세(centenarian)까지는 정말 요원하게 보인다. 그냥 죽기 전까지 비교적 노화를 느리게, 상대적으로 덜 아프고 내 두발로 걸어 다니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의미가 진하게 배어있는, 상징적인 구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설

잼버리 파행 전북 때리기

잼버리 문제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가 심각하다. 여성가족부가 주축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사업 계획과 집행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다고 '잼버리 특별법'에 명기돼 있다.

전북도의 일차적 책임은 행사를 잘 치를 목적보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잼버리 유치에 나선 것이다. 잼버리를 잘 치르기 위해 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압력에 밀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것도 문제다.

근본적인 책임은 매립이 안된 갯벌을 대회 아영지로 정한 것이다. 매립한 지 오래된 간척 부지를 놔두고 갯벌을 새로 매워 아영 부지를 마련하려고 한 건 행사보다 갯벌 매립 자체가 주목적이었다.

매립 공사는 착공까지 늦어지면서 침수 대책 마련이 촉박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71명이 공무원, 44명이 민간 전문가로 공무원이 중양부처 18명, 전북도 등 지자체 53명이다.

이들은 파행을 나온 이상 조직위 사무총장과 조직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최종 책임은 조직위 사무총장과 조직위원장 몫이다. 잼버리 특별법에도 책임 주체는 여가부장관이 주도하는 조직위로 되어 있다.

화장실·샤워실 등의 설치 운영을 맡은 시설본부가 본부장부터 직원까지 10명 전원이 지자체 소속이란 점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 역시 설치·운영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결재한 것은 사무총장과 조직위원장이란 점에서 최종 책임은 조직위에 있다.

전북 지역 기업들이 시설·운영 관련 사업을 유치한 것을 두고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이다. 지역 행사에서 지역기업들에게 일감을 주는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목적도 있다. 행정책임은 최종 결재권자, 즉 마지막에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군지만 보면 된다.

전주완주 110경 발굴

전주완주에는 각종 스토리텔링이 넘쳐나는 곳이다. 특히 전주의 '사대문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경원동·교사동·중앙동 일대는 전라도에서 가장 변화한 곳 중 하나였다. 종남문은 전주부성의 남문이다.

남쪽을 둘러싸고 있는 웅성과 종남문 좌우의 성벽이 있다. 종남문은 1978~1980년 웅성과 좌우 성벽 일부가 복원됐다. 1994년 4월 동화동민회명 100주년 기념행사를 이곳에서 열었다.

전라감영 자리를 지나면 전주 최대의 변화기였던 옛 전주우체국(지금의 경원동우체국) 사거리다. 1960년대 전주 최고 상징기였던 곳이다. 우체국 사거리에서 '다가동(청석동) 파출소'까지 이어진 곳이다.

이곳은 2008년 '웨딩거리'로 조성됐다. 지금은 드레스, 미용, 귀금속 가게 등이 많다. '테마거리'의 종점은 종패지관이다. 전주시는 종남문~전라감영~종패지관(객사)을 잇는

'전라감영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 일대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는 곳이 많다. 전주예수병원 앞동산에는 11기의 선교사 무덤이 있다. 전주 삼천전(三川-세내)에는 고(故) 김용진 전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만든 '마전교'가 있다.

예전에 청석동으로 불리던 현재의 다가동은 간재 전주(田惠) 선생의 출생지이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동산이라도 세운다면 바로 다가동에 세워야 할 것이다.

좁은목 약수터 옆 바위에 새겨진 '관찰사'는 과연 누구이며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볼 일이다.

떡진동 하거리 마을에는 동네 가운데에 전주이씨 시중공파 재실인 '안동재'가 있다. 삼천동 정여립로에는 전주임씨 시조 일행 묘소가 있다. 전주는 8경관이 아니다. 요즘 전주완주 110경에 관심이 높아가는 이유다.

독자재언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흥기 난동 사건 이후 쏟아진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이 전국에서 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431건을 수사해 184건(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 피의자는 80명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부분 장난으로 올린 경우가 많으나, 살인예고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 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온라인상 구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 검거하고 있다.

이처럼 장난으로 작성한 살인예고 글은 명백한 범죄행위는 점을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경찰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정태철고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외치는 일본 시위대



22일 비 내리는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